서울인쇄대상
위상제고 · 수출증대 계기 만들 터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충원)과 (재)서울인쇄센터는 서울특별시의 후원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쇄를 홍보하고, 인쇄문화인들 스스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1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를 준비했다. 많은 인쇄인들이 '서울인쇄대상' 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보니 낯선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인쇄대상행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충원 이사장을 만나 '제 1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에 대해 들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최근 해외 행사와 수출증대를 위한 출장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해외전시회를 다니다 보면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인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인쇄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힘은 역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인쇄산업전 'KIPES' 와 서울광장에서 있을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는 분명히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 인쇄인들, 인쇄기기제조업체를 떠나서 우리나라 인쇄기술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분명 '인쇄' 에 힘을 불어넣어 정체되어 있는 인쇄문화산업을 다시 한 번 부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인쇄대상을 개최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인쇄는 물과 공기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인류가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도 종이를 통해서였고, 지식을 배운 것도 종이에 인쇄된 활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요즘 최첨단이라고 하는 전자회로들도 인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인쇄를 빼놓고 인류를 말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너무 익숙하다보니, 인쇄가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 펜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어땠나요?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명인을 만나서 사인을 받아야 할 때나, 뭔가 적어 놓지 않으면 안 될 때 펜은 절실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삶의 하나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인쇄도 이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인간들의 생활을 변화시켰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인쇄가 무엇인지 조차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인쇄' 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시상과 축제를 개최하여 사람들에게 인쇄문화산업의 가치를 알리자고 뜻을 모았고, 인쇄가 서울특별시의 특화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서울광장에서 시상식과 인쇄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인쇄대상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울인쇄대상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인쇄관련 공모전입니다. 처음 진행하는 행사라서 조금은 다듬어지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횟수가 더해 가면 유관 기업들의 다양한 후원을 확보해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공모전으로 발전하게 할 것입니다.

서울인쇄대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재 국내 인쇄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내 인쇄 수준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이를 보여주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인쇄기술들이 선보이고 있는가를 일반인은 물론 인쇄, 출판, 디자이너들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인쇄문화인들의 자부심을 높인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고품질의 인쇄물을 통해 인쇄가 3D업종이 아니라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가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울인쇄대상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인쇄인들이 경쟁하고, 다시 한 번 뭉친다는 데 있을 겁

니다. 최고 작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인쇄대상은 인쇄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인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금 인쇄산업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서울인쇄대상' 은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인쇄물 자체가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감상하고, 서로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쇄사들도 네임 벨류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역시 이 인쇄사에서 인쇄한 것이구나'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쇄사의 브랜드를 홍보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공기업들은 기획사나 출판사와 거래하기 전에 인쇄사가 어딘지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쇄품질이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 준비되는 행사라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정할 당시까지 준비가 부족해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라는 노파심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쇄문화축제와 서울인쇄대상' 은 오랫동안 인쇄인들 스스로 필요성을 제기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첫 행사의 어려움은 황무지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열매를 원하는데,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의를 가진 인쇄인들이 없었다면 도중에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소양을 갖춘 실무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성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조직된 조직위원회가 없었다면 행사의 진행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까지 잘 준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인쇄대상이 여타의 디자인공모전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서울인쇄대상은 인쇄물의 전체적인 면을 심사하게 됩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창조성과 색채, 모양 등 시각적인 부분을 보게 될 것이고, 인쇄에서는 디자인을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으며, 인쇄품질의 수준은 어떠한지, 어떤 새로운 인쇄기술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상품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돼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채점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출품 자격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출품 조건이 다른 공모전에 비해서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준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복 돋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응모작품들의 수준이 다들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제1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는 9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중구지역 인쇄거리에서 거리축제를 시작으로 서울광장 잔디마당에서 열리며, 인쇄문화를 즐길 수 있는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주변 협찬부스들에서는 다양한 인쇄홍보,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며, 전시장에서는 서울인쇄대상 수상작이 전시된다. 이날 행사의 꽃은 무엇보다도 프라자호텔에서 1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서울인쇄대상' 시상식이다. '서울인쇄대상' 은 서울인쇄인을 대상으로 자사에서 만든 작품들을 심사해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가장 뛰어난 독창성과 인쇄품질을 보여준 업체가 수상하게 된다. 수상하게 되면 행사작품은 행사기간 동안 광장에 전시되고, 수상업체는 앞으로 서울시를 대표하는 업체로 발전할 수 있다.

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의 출품은 서울로 한정되어 있는데, 행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외적인 확장보다 질적인 바탕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축제행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인쇄대상, 국제인쇄대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인쇄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똑같은 인쇄기를 사용해도 그 품질은 인쇄기를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곤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고유의 장인정신 때문인지 기계를 제조한 회사에서조차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서울인쇄대상의 필요성을 느낀 것도 같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되나요?

우선 서울인쇄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인쇄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서울광장에 전시되게 됩니다. 수많은 서울시민과 인쇄출판인들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자사에서 나온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고, 품질의 우수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상작이 소개됩니다.

이와함께 서울인쇄센터내 인쇄문화홍보관에서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여 전시, 홍보하게 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우수인쇄물대상 마크나 심벌을 제작하여 수상업체들이 자사의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수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품질관리와 우수 인쇄물 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의 대표적인 인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서울인쇄대상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인쇄조합과 (재)서울인쇄센터는 인쇄인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행사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국내 인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리고, 수출로 이어지게 한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시장 조사를 면밀히 해오고 있는데, 외국에서 국내의 인쇄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마땅한 인쇄품질 인증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수출의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과 함께 품질인증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전에 서울인쇄대상과 같은 공모전을 통해 인쇄인들의 인쇄품질향상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부산국제 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명실 공히 세계적인 국제영화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영화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은 노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1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도 지금은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조언해주고, 이끌어준다면 국제적인 인쇄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